

# 철도 개통→시가지 확산→수도 개설... '도시들' 갖춰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탐사 <35>



<전남편>

## 15. 본격화 되는 순천의 도시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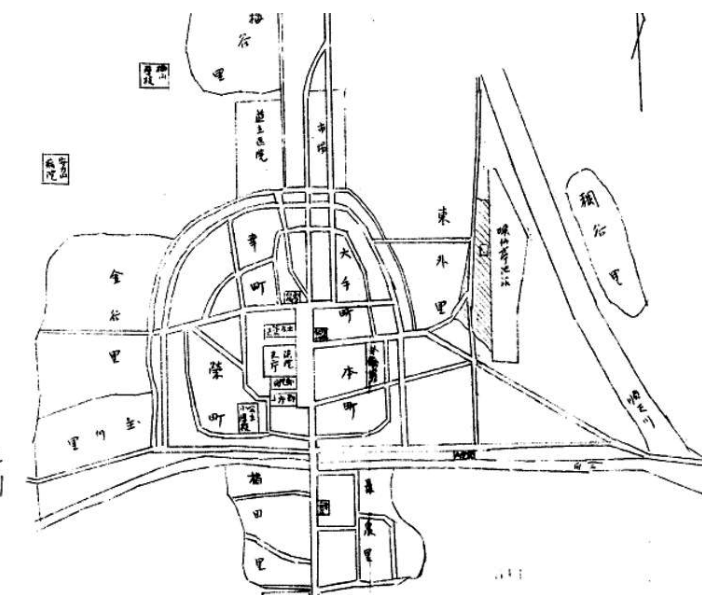
1931년 읍 승격후 인구 폭증따라 대대적 착수

첫 공원 환선정지 조성·상수도 설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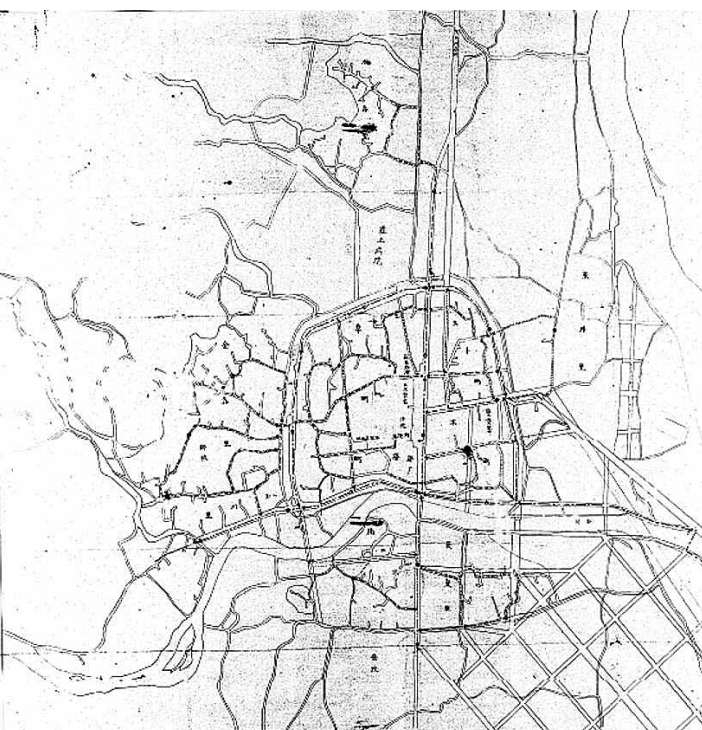
동천 개수·경전철 촉진·여수나병원 이전 건의



일제에 의한 개발 이전 순천의 경관은 읍성과 환선정, 연자루 등이 단연 핵심이었다. 하지만 도로 개설 등 도시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이들 시설은 모두 헐렸다.



1941년 서류에 등장하는 '순천읍시가지' 환선정과 앞 연못의 위치, 읍성 내외와 동천, 육천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



순천읍 상수도 배수관 포설설명도. 이 도면의 오른쪽에 위치한 동천 옆으로 계획이 된 부분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 정연한 시가지계획이 눈에 띈다. 순천면(읍)의 시구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타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각 사업도면에 시구개정으로 추정되는 시가의 계획선이 나타난다. 이 계획선의 실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려한 철도시대를 연 순천은 1931년 읍으로 승격하면서 대대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일으켰다.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한 문서 가운데 1930년대 순천의 도시변화에 대한 첫 번째 기록물은 공원조성계획이다.

광주의 첫 근대식 공원인 구강공원(지금의 광주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1912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년 정도 늦은 셈이다. 1929년 6월 순천면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했고, 1930년 1월 조선총독부는 이를 인가했다. 공원 부지는 순천읍성의 동쪽에 자리한 순천면 동외리(지금의 동외동)에 위치한 환선정지였다. 환선정이라는 정자와 큰 연못이 자리했고, 연자루와 함께 순천의 대표경관이었다. 또 이곳은 활을 쏘는 사정(射亭)이라고도 불렀다.

관유 재산이었던 이곳의 면적은 2631평이었으며 저지대였기 때문에 연장 270m, 폭 1m의 제방을 축조한 뒤 뿔나무 300그루를 심었다. 600m의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는 마무리됐으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2494원이었다.

당시 이 사안을 논의한 순천면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인 면의원은 공원 조성 후 계속해서 활쏘기를 할 수 있는지에, 일본인 면의원은 연못을 매립해 택지로 개발한 뒤 매각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교육시설인 소학교 부지가 협소해 교외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여기서 얻고자했다.

이는 광주 경양방죽의 매립과정과 비슷한 양상이다. 면장은 이러한 일본인 면의원의 제안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회의는 끝났다.

이후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쳤는지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이 공원은 사라지고 택지로 개발됐으며, 연못도 역시 매립됐다. 일본인들의 방안이 그대로 적용돼 순천의 자랑할만한 경관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환선정은 1962년 수재로 소실된 뒤 이후 죽도봉공원으로 옮겨갔다. 또 하나의 순천의 명물, 연자루는 1927년 사라졌다. 일제의 시구개정사업, 다시 말해 근대식 도로를 놓는 과정에서 읍성 남문과 육천 사이에 있던 연자루가 헐렸다는 사실은 1927년 12월 동아일보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다.

순천의 시구개정사업은 1923년 8월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로 인해 반듯한 격자형 도로들이 생겨나고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도시공간은 크게 변모했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순천 상수도 공사 평면도를 보면 당시 순천읍성을 중심으로 남동쪽에 정연한 시가가 조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인들로 구성된 순천학교조합의 소학교 이전에 관한 서류에는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조선철도의 개통에 따라 호구가 현저히 증가하고 전주~순천~진주에 이르는 국유철도가 개통되면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또 순천면은 장래 시가의 팽창이 예상돼 시가 동북부에 새로운 시가의 축조를 계획하고, 상수도의 부설도 확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면서 순천에도 도시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수도였다.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1930년 작성된 '국고보조상수도 건'을 보면, 1930년 5월 9일에 순천면장이 작성한 지방토목비국고보조신청서에 순천수도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25년부터 1927년까지 전라남도 16개 읍의 수질조사에 따르면 순천면 내 우물 중에서 음료에 적합한 것이 53개이고, 142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순위는 나주, 광양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 전염병 발생 수도 전라남도 총 인구 200만명 중 331명이 발생했는데 비해 순천면에서만 인구 1만4000명 중 17명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이질, 장티푸스 환자가 있었다. 게다가 우물의 수원이 부족해 상수 고갈되며, 화재 발생시에도 소방활동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조선토목사업지에서 1928년 사실 및 전용수도 일람표를 보면 미국선교사들이 자리를 틀었던 순천군 순천면 매곡리에 사설 수도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수원엔 지하수였고, 급수방식은 자연유하식이었으며, 여과지 및 배수지 각각 1개소가 있었다. 급수개시일 1917년 5월이었고, 공사비로 800원이 소요됐으며, 급수인원 28명이었다. 아무튼 이러한 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에 총독부는 1931년~32년의 2개년 계속사업으로 수도부설계획을 인가하고 공사비 18만원 중 6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급수지역은 순천시가지로 호수 214호(인구 1만91명), 장래추정인구(1945년)는 2만명으로 산정했다. 구역 내에서 수도를 보급받는 인구는 8000명으로, 보급률은 40%로 했다. 급수량은 1일 총급수량 800m(1인당 100ℓ)로 했으며, 구역 내 한국인은 8880명(1812호), 일본인 1122명(300호), 기타 외국인 89명(29호)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시가급수 지역을 8곳으로 구분했는데, 지하 1m에 철관을 총 연장 1만1757m를 포설하는 것은 물론 공용전 17개소, 소화전 66개소 등을 두는 방안이었다. 1931년 이 계획을 일부 변경, 3개년 계속사업으로 기간을 연장했고, 공사는 1931년 12월부터 착수해 1년8개월 만에 준공했다. 1933년 2월부터 거의 공사가 끝나면서 가급수를 시작했으며, 그 해 10월20일에 통수식을 순천상수도 사무소에서 거행했다.

순천면(읍)의 시구개정에 관한 구상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었는지는 미지수다. 1931년 2월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당시 주요도시 순회취담이 실시됐는데 여기에 참석한 호남은행순천지점장, 순천기독교청년회장, 순천농민연합회위원장, 순천공공의 등은 순천의 시구개정이 늦었고, 도로 점유가 임의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으며, 이 모임에 참여한 순천면협의회 관계자들도 시구개정 관련 토목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고 입을 모았다.

1930년대 들어 상수도 공사와 함께 하수도 공사로 시작했다. 목포나 광주가 상수도 공사가 먼저 완료되고 하수도 공사를 실시했던 것과는 달리 순천은 거의 동시에 상수도 공사가 일부 구간에서 시작했다.

순천읍도 자체 재원으로 이 공사를 실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1932년 6월 총독부에 국고보조 요청을 했다. 이 사업은 1933년부터 193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됐고, 공사비 5만5000원 중 국고보조 2만7500원, 지방비보조 1만3500원이었고, 읍 부담 금액은 1만4000원이었다. 당시 호벌세가 1호당 2원50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읍은 필요한도까지 증세를 해 호벌세와 수익자부담금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려 했다.

1932년 9월에 조선총독이 순시차 순천을 방문했는데, 이 때 유지들은 동천 개수, 경전선 철도 촉진, 여수나병원 이전의 건을 진정했다. 사실 순천의 동천은 수해 문제로 시가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33년 전라남북도 수해 조사 때에도 순천의 경우 동천과 이사천 연안이 2500정보(24.7km)나 침수됐다고 한다. 당연히 순천 시가지에도 영향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32년부터 2년 동안 순천의 동천개수공사가 실시됐다. 공사비 1만6000원으로 631m의 제방을 쌓았다. 이 공사 완공 후에도 홍수 피해가 계속되자 1935년부터 3년간 순천읍은 순천읍~해룡면 중 홍리 9.5km, 동천 지류 덕안리~해룡면 대안리 2.5km, 이사천 도사면 야흥리~하대리 6.0km의 제방을 쌓기로 하고 매년 20만원씩 6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셔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스타크루즈호

# 2013년

## 선상해맞이 축제

고객감사 할인

20,000원 → 10,000원

선착순 45명

전화문의만 받습니다.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몽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미상소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벌(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http://www.jeube.com)

1644-2261